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 당 (2)	봉 헌 (215)	성 체 (174)	파 견 (34)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봉헌 때 헌금을 내려 나가서 헌금함 앞에 이르기 한 두 사람 전에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포함합니다. 봉헌함에 헌금을 던지듯 넣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소곳이 정성스럽게 봉헌 합니다.

- 성찬 전례 중 사제는 거양(擧揚 :들어올림) 성체(聖體) 후와 거양 성혈(聖血) 후에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하는데,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거양 후 내려놓으신 다음 사제가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할 때 거기에 맞춰 교우들도 함께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포함합니다.

- 미사 성체 중에 사제가 말로 바치는 부분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부분으로 교우들은 걸으로나 속으로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부분 ("너희는 모두..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니..")과 파견예식 때 사제가 강복을 주실 때 성호경을 따라하는 교우 분들이 있는데 강복은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0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2/3	이 미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2/1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1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0	\$85	\$1,0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9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2/23	황 가를로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3/2	손 아놀드/ 손 쟈마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2월 11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김하늘 세실리아 | 배우-

나는 어릴 때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선생님께서 책 읽기를 시키면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장래희망이 정해졌는데 난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로 생각지도 못하게 의류 모델이 되었어요. 그 후 광고와 영화를 찍게 되고 쉽 없이 달려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모델이 되고, 많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우연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모든 것은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하던 작품이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며 연연하지 않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더 소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작품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연기자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고 표현하면서 저 스스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맙게도 많은 사람의 응원과 저의 연기를 보고 작은 행복과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느님께 한없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느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라고 하신 건가? 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일까?'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 나는 앞만 보고 달리기에만 바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도 넓은 시야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잘 아는 신부님께서 "세실리아는 하느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어. 세실리아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연기가 될 거야. 오드리 헵번같이 훌륭한 연기자뿐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난 "제가 어떻게? 그분은 마음도 얼굴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선 인자한 눈빛으로 늘 응원하고 기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난 그때 연기만으로도 버거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부님은 그분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편하게 갖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떤 큰 성과보다 그냥 좀 더 주변을 돌아보고, 한발 더 나아가고, 작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밝혀주신 길 위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느님! 제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느님의 빛을 늘 밝혀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빛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게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랑합니다! 하느님"